Symphony No. 1 in D major "Titan"

- □□

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1 in D major, GMW 11
별칭: Titan
작곡가: Gustav Mahler (1860–1911)
작곡 시기: 1884년의 선행 재료를 포함해 1887년 말 –1888년 3월에 완성, 1893–1910년 개정
초연: 1889년 11월 20일, Budapest Vigadó, Mahler 지휘 Budapest Philharmonic Orchestra 장르: 관현악 교향곡

IMSLP: Symphony No.1, GMW 11 (Mahler, Gustav)

Wikipedia: Symphony No. 1 (Mahler)

Gustav Mahler의 Symphony No. 1 in D major는 현재 네 악장으로 연주되는 관현악 교향곡이다 . 이 글은 Mahler가 마지막으로 확정한 4악장판을 중심으로 하며, 초기 공연에서 제 2악장으로 들어갔던 Blumine 과 한때 사용된 표제 Titan은 별도의 판본 ·수용사로 설명한다. 네 악장은 자연의 도입, 춤, 장송 행진, 폭풍 같은 피날레 순서로 이어지고, 가곡과 거리음악에서 가져온 재료가 교향곡의 진행 속에 결합된다.

출판 정보와 자료

Mahler는 Leipzig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이 작품을 집중적으로 완성했다. 1889년 Budapest 초연 때 작품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교향시로 소개되었고 , 이후 Hamburg와 Weimar 공연에서 표제와 프로그램이 바뀌었다. 1896년 Berlin 공연에서는 Blumine 과 Titan 표제가 빠졌으며, 1899년에는 네 악장판이
출판되었다 . Mahler는 그 뒤에도 관현악을 고쳤고, Breitkopf & Härtel의 Christian Rudolf Riedel 편집판은 1910년 Mahler가 마지막으로 교정한 음악 텍스트를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오늘날의 연주와 연구에서는 1899년 초판과 1910년 최종 개정의 관계를 의식할 필요가 있다.

Blumine 은 Joseph Victor von Scheffel의 Der Trompeter von Säckingen을 위해 1884년에 쓴 부수음악의 트럼펫 세레나데에서 유래했다. Mahler는 이 악장을 초기 교향곡에 끼워 넣었다가 1894년 공연 이후 삭제했다. Donald Mitchell이 1966년 1893년 Hamburg 버전의 사본에서 악장을 찾아냈고, Benjamin Britten이 1967년 Aldeburgh Festival에서 20세기 첫 공연을 지휘하면서 별도의 공연 레퍼토리로 돌아왔다. 이 악장의 원래 악보가 소실된 까닭에, 초기 버전의 모든 세부를 완전히 복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요 시간

최종 4악장판은 보통 약 50–55분이다. Blumine 을 포함한 5악장 형태는 대체로 약 1시간이 걸린다. 네 악장의 공연 시간은 각각 약 15분, 8분, 11분, 20분 안팎이지만 , 제 1악장의 반복과 피날레의 호흡, Blumine 포함 여부에 따라 전체 시간이 달라진다.

편성

설명의 기준은 Mahler가 1910년에 마지막으로 교정한 최종판 계열이다.

목관: 플루트 4(제 3·제 4는 피콜로 겸), 오보에 4(제 3은 잉글리시 호른 겸), 클라리넷 4(베이스
클라리넷과 E♭ 클라리넷 겸주 포함), 바순 3(제 3은 콘트라바순 겸)
금관: 호른 7, 트럼펫 5, 트롬본 4, 튜바
타악기: 두 주자 팀파니, 큰북, 심벌즈, 트라이앵글 , 탐탐
그 밖의 악기: 하프, 제 1·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제 1악장 도입의 트럼펫 신호는 무대 밖에서 들리도록 배치하는 관행이 있으며, 실제 위치는 공연장과 악단의 조건에 따라 조정된다. 마지막 코랄에서는 Mahler가 추가 트럼펫과 트롬본, 가능하면 더 많은 호른을 쓰라고 지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보강은 네 악장 전체에 새로운 기본 파트를 더한다는 뜻이 아니라, 피날레의 특정 구간에서 음량과 투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 표제에서 최종 교향곡으로

초기 작품에는 명시적인 프로그램이 있었다. 첫 부분은 자연이 깨어나고 주인공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장면, 두 번째 부분은 장송 행진과 피날레로 이어지는 구상이었다 . Mahler는 연주가 거듭될수록 제목과 설명을 걷어 냈다. 이 변화는 프로그램 음악을 포기했다는 단순한 선언으로 보기보다, 음악 자체의 연결을 청중이 따라가게 하려는 판본 정리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하다. Titan은 현재도 널리 쓰이는 별칭이지만 , 최종판의 공식 제목은 표제 없는 D장조 교향곡이다 .

네 악장의 진행

I. Langsam, schleppend. Wie ein Naturlaut. Im Anfang sehr gemächlich

제 1악장은 매우 느리고 여유롭게, “자연의 소리처럼 ” 시작한다. 높은 현악의 지속음이 넓은 공간을 만들고, 목관의 새소리와 멀리서 오는 트럼펫 신호가 그 공간 안에 나타난다. 이 도입은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짧은 삽입부가 아니라, 교향곡 전체가 출발하는 시간과 거리를 설정한다.

이어 첼로와 낮은 현이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의 Ging heut' morgens übers Feld 와 연결되는 선율을 가져온다. 가곡에서 먼저 나온 선율이 관현악의 주제로 확장되면서 , 개인의 노래가 교향곡의 여정으로 바뀐다. 이 악장은 긴 도입을 가진 소나타 형식으로 설명되지만 , 자연음과 군악적 신호가 주제의 전개에
끼어드는 방식이 전통적인 형식 설명만으로는 다 담기지 않는다.

II. Kräftig bewegt, doch nicht zu schnell

제 2악장은 힘차게 움직이되 너무 빠르지 않게 연주하도록 지시되어 있다. 중심에는 Ländler의 무거운
발걸음과 거친 춤 리듬이 있으며, 중간의 Trio는 선율을 유연하게 바꾸어 잠시 다른 걸음걸이를 보여 준다. Mahler는 세련된 도시 왈츠 대신 농촌의 춤이 가진 무게와 불규칙한 몸짓을 교향곡의 중심부에 놓았다.

초기 5악장판에서는 이 악장 앞에 Blumine 이 있었다. 최종 4악장판에서 Blumine 이 빠졌기 때문에, 제 2 악장은 자연 도입 뒤 곧바로 춤으로 들어간다. 이 배열은 자연의 소리에서 육체적인 춤으로 넘어가는 대비를 직접적으로 만든다.

III. Feierlich und gemessen, ohne zu schleppen

제 3악장은 장중하고 절도 있게, 그러나 끌지 않게 진행된다. 더블베이스가 Frère Jacques 또는 독일어권의 Bruder Martin 으로 알려진 선율을 단조로 시작하고, 다른 악기가 차례로 이어받으면서 장송 행진이 된다. 익숙한 어린이 노래가 낮은 음역과 단조의 행진으로 바뀌는 순간, 친숙함과 불안이 같은 음악 안에 놓인다.

행진은 곧 거리악대와 춤의 소리를 끌어들인다 . Mahler는 이 장면에 패러디를 뜻하는 mit Parodie 를 표시했고, 장례의 엄숙함을 유지하면서도 그 행렬을 과장된 구경거리처럼 보이게 했다. 중간에는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과 연결되는 더 부드러운 선율이 나타난다. 이 부분은 행진을 잠시 중단하는 독립된 서정 악장이 아니라, 장송과 회상이 서로 얽히는 제 3악장의 내부 사건이다.

IV. Stürmisch bewegt. Energisch

피날레는 폭풍처럼 움직이고 에너지 있게 시작한다. 갑작스러운 관현악의 폭발 뒤에 제 1악장의 자연적 신호, 제 2악장의 춤, 제 3악장의 장송 행진과 연결되는 재료가 돌아오며, 작품 전체가 이미 지나온 사건을 다시 통과한다. Mahler는 마지막 악장을 단순한 빠른 결말로 만들지 않고, 앞선 악장들의 기억을 거대한 투쟁 속에 다시 배치했다.

마지막 코랄이 가까워질수록 금관의 규모와 음량이 커진다. Mahler는 호른 주자들이 일어서서 가능한 큰 소리를 내도록 적었고, Universal Edition이 소개하는 Franz Schalk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추가 트럼펫과 트롬본, 더 많은 호른을 보강 수단으로 언급했다. Sir Charles Mackerras도 2010년 Gramophone
인터뷰에서 이 지시를 설명하면서 Mahler가 모든 악기의 소리를 명료하게 들려주려고 관현악을 계속
손질했다고 회고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보강은 시각적 효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긴 피날레를 통과한
주제가 관현악 전체 위로 선명하게 솟도록 하는 실연 조건이다.

Blumine을 둘러싼 판본 선택

Blumine 은 작은 편성의 트럼펫 세레나데에 가까운 악장이다. Mahler가 이 악장을 교향곡에 넣었을 때에는 제 1악장과 춤 악장 사이에 놓였지만, 1894년 Weimar 공연 뒤 삭제되었고 이후의 출판본에 돌아오지 않았다. Mahler Foundation은 악장의 작은 자필지와 원래 부수음악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 세부적으로 얼마나 고쳐 썼는지는 원자료가 없어 완전히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힌다.

오늘날 Blumine 을 포함한 녹음은 초기 형성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네 악장만 연주하는 방식은 Mahler 가 출판과 후대 개정을 통해 확정한 구조를 따른다. 초기 5악장판과 Mahler가 확정한 최종 4악장판은 서로 다른 판본으로 구별된다. 공연 프로그램과 음반은 Blumine 의 포함 여부를 함께 표시하며, 최종 4악장판은
출판과 후대 개정으로 확정된 구조를 따른다.

연주 전통과 레코딩

Mahler의 악보는 여러 악기를 큰 편성으로 사용하면서도 각 세부를 들려주려는 지시를 함께 담고 있다. Mackerras는 Mahler가 공연 때마다 관현악을 고쳐 음향을 더 명료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도입의 먼 트럼펫과 마지막 코랄의 호른처럼 공간과 음량을 작품의 일부로 다룬 Mahler의 공연 관행을 보여 주는 역사적 단서다.

Rafael Kubelík의 녹음에 대한 Tony Duggan의 MusicWeb International 비평은 또 다른 접근을 보여 준다. Duggan은 1979년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실황이 Kubelík의 민속적 뿌리, 정제된 텍스처, 노래하는 선율을 살리면서도 그로테스크한 장면과 피날레의 힘을 전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1967년 스튜디오 녹음과 비교해 실황판의 균형 잡힌 음향도 장점으로 들었다. 이 평가는 Kubelík의 해석에
대한 Tony Duggan의 관점으로서 하나의 연주 사례를 남긴다.

제 1악장의 공간, 제 2악장의 춤, 제 3악장의 행진과 패러디, 제 4악장의 회상과 코랄은 각각 뚜렷한 성격을
지니면서도 네 악장의 기억 구조 안에서 이어진다. 악기별로 노출되는 순간 역시 개별 효과로 흩어지지 않고 전체 형식의 진행과 함께 움직인다. 자연의 소리는 배경에 머무르지 않으며, 마지막 코랄을 향한 긴 여정의 출발점이 된다.

주요 자료

Universal Edition, Mahler: Symphony No. 1 — 4악장 최종판, 편성, 개정사와 마지막 코랄
보강에 관한 Mahler 서신.
Breitkopf & Härtel, Mahler: Symphony No. 1, Final Version 1910 — Christian Rudolf Riedel
편집 비평판과 1910년 최종판의 서지 ·판본 설명.
Boston Symphony Orchestra, Robert Kirzinger, Mahler Symphony No. 1 program note —
초기 표제와 Blumine, 최종판 편성 및 프로그램의 관계.
LA Phil, Symphony No. 1, “Titan” — 초기 문학적 프로그램과 후대 제목 정리.

Mahler Foundation, Blumine — 악장의 출처, 삭제, Donald Mitchell의 재발견과 Benjamin Britten의 재공연.
Michael McManus, “Mahler’s Symphony No 1, by Sir Charles Mackerras,” Gramophone — 호른 보강, 악기 명료도와 Mahler의 개정에 관한 2010년 인터뷰.
Tony Duggan, “Mahler: Symphony 1 (Audite),” MusicWeb International — Rafael Kubelík의 1979년 실황과 해석 ·음향에 관한 비평.